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유화 확대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자산운영 자유화를 위하여 '보험자금투자채권임시조례'(이하 '채권조례'라 함), '보험자금투자위탁관리임시조례'(이하 '위탁조례'라 함), '보험자금 투자 주식 및 부동산 관련 문제의 통지'(이하 '통지'라 함)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음.

- '채권조례'는 국공채와 일반 회사채로 제한되어있던 채권 투자 대상을 하이브리드 채권, 전환채권까지 확대하고 무담보채권 투자 비중 상한을 20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 신용 등급 평가기관을 단일화함.
- '통지'는 보험회사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비중을 각각 5%, 10%에서 10%, 15%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범위를 자기자본에서 보험책임준비금 및 기타 자산까지 확대함.
-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위탁관리기관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보험자산관리회사에 국한되어 왔으나 '위탁조례'를 통해 증권사 및 펀드까지 확대되었으며, 리스크관리를 위해 위탁관리기관의 자격을 제한하고 투자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한정함.

■ 자산운용 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10개의 추가 자유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.

-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규제가 적은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10년간 8.4%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,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.77%에 불과하였음.
  - 2011년 말 보험산업 운용자산 규모는 6.89조 위안(1,240.2조 원)이며, 사회보험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장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8,688.2억 위안(156.4조원)임.
- 한편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파생상품 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10개의 추가 자유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.

(신랑망, 신화망, 7/25))